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경제]

- Bloomberg: 8월 미 소매 판매 예상치 상회... 휘발유값 상승 탓
- Bloomberg: 미 생산자 물가 1년여 만에 크게 뛰어... 에너지 비용 탓
- Barron's: 미 신규 실업청구 건수 예상보다 적게 늘어

#### [미국 금융]

- CNN Business: 월가 분위기 개선 불구, 아직 '낙관은 금물'

#### [부동산]

- CNBC: 맨해튼 월 평균 임대료, 4천4백불로 사상 최대

#### [에너지]

- WSJ: 원유가 상승에 누가 압박을 받고 있는가?

#### [전기차]

- Bloomberg: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 획기적인 속도 보인다

#### [인공지능]

- WSJ: 머스크, AI는 '위협적...게이츠는 '세계 기아 개선' 입장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CNN Business: 극한의 날씨에 글로벌 의류산업은 2030년까지 650억불 손실
- Bloomberg: 구글러들, 'Share'와 'Bundle'이란 단어 사용 못 해
- WSJ: Arm, 한 주당 공모가 51불로 정해
- CNBC: 거대 선박회사 Maersk, 세계 최초 친환경 선박 공개하다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 [미국 경제]

#### **Bloomberg: US Retail Sales Top Estimates on Higher Gasoline Prices** 8월 미 소매 판매 예상치 상회... 휘발유값 상승 탓

-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임의 소비재 지출을 제한하면서 8월 미 소매 판매가 성장 둔화세를 보였다.
- 오늘 목요일 상무부에 따르면 전체 소매 구매액은 두달 연속 하향 조정후에 7월보다 0.6% 상승했다. 휘발유를 제외하고 소매 판매는 0.2% 상승해 올해 가장 낮은 증가세를 보였다.
- 지난달에 의류와 전자 제품을 포함해 대부분의 소매 품목이 올랐다. 그러나 그로서리와 백화점 상품 등은 감소했다.
- 일부 전문가들은 “실질 임금과 부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소비자들이 8월에 다소 물러난 이유는 높은 이자율, 연료비 상승, 초과 저축 감소, 일자리 둔화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Producer Prices Rise Most in More Than a Year on Energy Costs****미 생산자 물가 1년여 만에 크게 뛰어... 에너지 비용 탓**

- 8월에 미국 생산자들에게 지불한 가격이 1년여 보다 크게 증가했는데 에너지 가격과 운송 비용 상승 탓이다.
- 최종 수요의 8월 생산자 물가지수(PPI)는 전월에 비해 0.7% 증가한 것으로 오늘 목요일 연방 노동청 자료는 밝혔다. 상승폭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가솔린으로 20% 상승했고,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PPI는 0.2% 상승했다.
- 공급망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많은 국가들의 경제둔화로 도매물가 수준에서 인플레이가 완화되었지만, 오일 가격 상승이 이같은 인플레이 완화를 위협하고 있다.
- 연가 기준으로 PPI는 지난 1년간 하락 추세 이후에 두달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Bloomberg 기사

**Barron's: Jobless Claims Increase Less Than Expected****미 신규 실업청구 건수 예상보다 적게 늘어**

- 지난주 신규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전문가 예상치보다 증가폭이 적었다.
- 9월 9일 끝나는 주의 신규 주간 실업 청구건수는 22만 건으로 그 전부의 조정치 보다 3천건 늘었다. 전문가들은 22만6천건으로 예상했다.
- 4주 평균 청구건수는 22만4천건으로 전주보다 5천건 줄었다.
- 전체 실업 수당 청구건은 1백60만건으로 전주보다 4천건 줄어서 예상치와 부합되었다.

## Barron's 기사

**[미국 금융]****CNN Business: Wall Street's mood is improving — but it's far from upbeat****월가 분위기 개선 불구, 아직 '낙관은 금물'**

- 월가의 낙관적인 분위기는 지난 몇 주간 상승했다. 그전 8월 슬럼프는 올해 초 여러 지역 은행들의 붕괴 뒤로는 볼수 없었던 수준이었다.
- 투자자들은 아직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 시장 심리의 7가지 지표를 추적하는 CNN의 '공포 및 탐욕지수'(CNN's Fear & Greed Index)는 8월 중순 '공포'지수로 급락한 후 이달 9월에는 '중립'과 '탐욕' 영역 사이에서 등락을 되풀이 하고 있다. (제로는 극단적인 공포 영역이며 100은 극단적인 탐욕 수준이다.)
- 그러나 8월의 매도세 시기 이전인 7월 말에 도달했던 극단적인 '탐욕' 지수에는 아직 멀리 떨어져 있으며 현재는 미 지역 은행 붕괴 이후에 4월말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 한마디로 일부 투자자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CNN Business 기사

#### [부동산]

### **CNBC: Manhattan median rent remains at record high of nearly \$4,400 a month**

#### **맨해튼 평균 임대료, 4천4백불로 사상 최대**

- 맨해튼의 임대료가 8월에 사상 최고치로 올라 세입자들이 경제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 부동산 Douglas Elliman 과 관련 리서치 기업인 Miller Samuel에 따르면 맨해튼 임대료 평균은 한 달 4천 3백70불을 기록했으며, 이는 7월의 최고치에서 변함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
- 높은 금리로 인해 구매자들이 부동산을 구매하기보단, 임대를 선호하고 있지만, 임대 주택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중개업자들은 말한다.

CNBC 기사

#### [에너지]

### **WSJ: Fuel Prices Are Soaring. Who Is Feeling the Pinch?**

#### **원유가 상승에 누가 압박을 받고 있는가?**

- OPEC와 동맹국들의 감산으로 원유가가 10개월만에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 이와 관련 경유, 제트류, 선박용 연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장 큰 사용처인 건설사, 운송업체, 농장주나 농부들이 압박을 받고 있다.
- 또한 정유업체들이 트럭, 비행기, 선박에 공급하는 중유를 생산하기 위해 부과하는 프리미엄도 인상됐다.

WSJ 기사

**[전기차]****Bloomberg: US Electric Vehicle Sales Reach Breakthrough Pace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 획기적인 속도 보인다**

- 한마디로 미국에서 전기차가 1백만대 팔릴때까지 10년이 걸렸지만 3백만대에는 단지 1년이 걸렸다.
- 올해 상반기 신차에서 전기차의 차지하는 비중은 7%를 넘어서며 대중화를 위한 중요한 시점에 도달하고 있다.
- 가장 인상적인 것은 연간 1백만 대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신차 판매량을 달성했다. 블룸버그 그린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12개월 동안 미국인들은 전기로만 운행하는 977,445대의 자동차를 구입했다.
- 완전 전기차 첫 1백만대 판매에 10년, 2백만대 판매에 2년, 3백만대 판매에 1년 조금 넘게 걸렸다. 아래 도표 참고.

Bloomberg 기사

**[인공지능]****WSJ: Musk Warns Senators About AI Threat, While Gates Says the Technology Could Target World Hunger****머스크, AI는 '위협적...게이츠는 '세계 기아 개선' 입장**

- 최근 연방상원의원들의 기술 규제와 관련해 입법화 논의를 하고 있다. 어제 수요일 일론 머스크, 마크 주커버그, 빌 게이츠 등이 참석해 AI의 가능성과 리스크 관련 의견을 피력했다.
- 일론 머스크는 AI가 인류에 위협을 가하는 잠재력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반면, 빌 게이츠는 인류 기아 회복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 한편 이날 입장을 밝힌 이들은 주커버그를 비롯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IBM 최고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CNN Business: Extreme weather may cost the global fashion industry \$65 billion by 2030****극한의 날씨에 글로벌 의류산업은 2030년까지 650억불 손실**

- 극한의 더위와 홍수가 의류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 Cornell University와 투자 매니저인 Shroders는 2030년까지 세계 4대 의류 생산국인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베트남 그리고 캄보디아가 6백50억 달러의 손실을 볼 것이라 전망한다.
- 이들 네 국가는 글로벌 의류 수출에 전체 18%를 담당하고 있으며, 만여 개의 의류 공장과 천육십 만명의 관련 업계 근로자를 있다.
- 그러나, 기후 위기에 있어서 이들 국가의 위치는 매우 취약하다. 의류 생산의 주요 거점인 Dhaka, Phnom Pen, Karachi, Lahore, Ho chi Min 그리고 Hanoi는 이미 극한의 더위와 습도로 인해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CNN Business 기사

## Bloomberg: Googler Told to Avoid Words Like 'Share' and 'Bundle,' US Says

### 구글러들, 'Share'와 'Bundle'이란 단어 사용 못 해

- 알파벳의 구글은 온라인 검색 사업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워싱턴 DC에서 재판받고 있다. 이사진들은 직원들에게 잠재적으로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당부했다.
- 법무부에 따르면, 구글의 직원들은 대화를 위해 기업 내부의 프로그램인 Google Chat을 사용하는데, "Communicate with Care"라는 내규에 따라 민감한 대화의 경우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대화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훈련받는다고 한다.
- "Share"란 단어는 'Plex 내부에서 민감한 주제이다. 데이터에 따르면, 구글은 검색 시장에서 90%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결과 검색 결과 옆에 나타나는 광고에서 대부분의 수입을 얻는다.

Bloomberg 기사

## WSJ: Arm Sets IPO Price at \$51 a Share

### Arm, 한 주당 공모가 51불로 정해

- 일본 소프트뱅크 자회사이자 영국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인 Arm이 1주당 공모가를 51불로 상장했다.
- 소식통에 따르면, 이 가격은 보험사들과 기업 경영진들의 어제 수요일 오후 회의 이후에 정해진 것이다. 처음에 회사의 목표는 한 주당 가격을 52불이었으나, 51불로 결정된 것이다.
- 이에 따라, Arm의 가치는 완전 희석 기준으로 5백4십억 4천만 달러로 추산된다. 이는 소프트뱅크가 비전 펀드로부터 Arm의 지분을 매입했을 때의 가치인 6백4십억 달러보다 낮은 가격이다.
- Arm의 주식은 ARM이란 명칭으로 나스닥에서 오늘 목요일부터 거래가 시작된다.

## WSJ 기사

**CNBC: Shipping giant Maersk unveils world's first vessel using green methanol****거대 선박회사 Maersk, 세계 최초 친환경 선박 공개하다**

- 2021년에 주문했던 새로운 컨테이너 선박이 2개의 엔진으로 작동한다. 한 엔진은 화석연료를 통해 작동하지만, 다른 엔진은 친환경 메탄올을 통해 움직인다. 친환경 메탄올은 바이오매스(Biomass)나 재생에너지에서부터 포집된 탄소 그리고 수소를 사용하는 대체 에너지이다.
- 이 새로운 선박은 기존의 디젤 선박에 비해 100톤가량의 이산화탄소를 더 적게 배출한다.
- Maersk의 CEO Vincent Clerc는 우리의 에너지 전환이 단순한 헌신과 노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입증했으며, 이런 성과를 모두가 지켜볼 수 있게 된 상징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 CNBC 기사

**[보고서]****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실망스런 美 CPI 지표...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커져****이달 연준 회의에서는 동결 전망 여전히 우세**

미국의 8 월 물가 지표가 실망스러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달 금리 인상을 쉬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뒤집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평가됐다.

13 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노동부는 이날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8 월 근원 CPI 가 전달보다 0.3% 올랐다고 발표했다. 6 개월 만에 첫 상승세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

